

‘퀀텀점프’ 하는 부산, 엑스포 개최를 꿈꾸다

지역 대학과 청년들의 꿈의 무대를 실현



▶2030부산월드엑스포

2010년, 막연한 금강증 때문에 당시 등록 엑스포가 한창이던 중국 상해로 향했던 장재국 총장은 전 세계의 최신 기술과 미래 전략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 동안 상해는 세계의 미래, 비전, 꿈을 함께 그리는 사람으로 북적였다”며 “지역, 국가, 세계를 향한 다양한 아이디어, 설계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13년 뒤 장 총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대학 총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낯설었지만 13년 전 상해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엑스포를 통해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망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장 총장은 “부산엑스포는 5000만 명의 관람객, 5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며 “부산엑스포를 준비하는 여정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미래 부산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산엑스포를 통해 부산이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 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전했다. “일본 오사카가 엑스포 이후 일본에 동경 말고 오사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엑스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서울 말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총장은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있어 앞으로 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꼽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와 함께 ‘2과전’으로 치러지는 유치전에 앞서기 위해서는 실사단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사단 평가를 부산시, 정부, 재계를 포함해 온 국민의 열망을 보여 주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엑스포를 개최할 역량이 된다는 점을 뽐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립야드의 경우 네뭉시터 등 인공적인 도시 조성을 감점으로 내세우는 측면이 있다. 부산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도시라는 부산만의 역사성을 ‘부산의 스토리’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영상학과 18학년 안영진 학생 작품

이어서 장 총장은 특위 차원에서 각 지역 해외 자매도시를 활용한 ‘측면 전략’으로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에는 전국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전국의 도시들이 각각 여러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자체적 외교 역량을 갖춘 만큼 엑스포 투표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결정을 자매도시를 설득해 부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를 이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특위 회의에서 엑스포를 부산산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 행사를 진행해 지역 소멸의 고민을 다 같이 풀어낼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며 “부산엑스포가 열린다면 인접 도시 경주, 대구, 경남으로 엑스포의 에너지가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지금은 엑스포 유치 전략을 가다듬고 어떤 엑스포를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라고 분석한다. 2030년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의 무대인만큼 지역 대학, 지역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리는 일도 갖춰야 할 요소로 진단

했다. 장 총장은 지역 대학 총장으로서 전국 대학생이 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 등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장 총장은 “엑스포는 젊은이에게 꿈의 무대가 될 수 있고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라며 “전국의 젊은이가 부산으로 몰려오고 엑스포 장소를 부산의 젊은이가 누비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산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진행하며 종종 엑스포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에 장 총장은 이런 우려 이전에 엑스포를 향한 도전 자체가 부산의 큰 발전 과정이라고 답변한다. 장 총장은 “실패에 대한 걱정보다는 도전 과정에서 생산될 새로운 발상, 부산의 진화가 넓은 범위의 엑스포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꺾이지 않는 마음, 열화와 같은 성원이라면 2030년 부산엑스포는 어느덧 성공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점선 있는 도화지에서 백지 도화지로

대학의 자율성과 지방대에 지원 강화 논의



▶장재국 총장

장재국 총장이 지난 7일 오후 4시에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7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재국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역대 정부의 국가주요적 고등교육정책이 가지고 온 대학재정의 피폐를 정상화시키고 인구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지방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은 별다른 재원을 찾지 못한 국내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적인 피폐를 초래하며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정부의 획일적 평가 기준은 인위적인 대학 서열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대학이 획일적 평가 기준에 사로잡혀 점선이 그려진 도화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백지 도화지에 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회장으로서 먼저 고등교육예산에 대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입법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받으면서도 “이것으로는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리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3년 후 종료될 특별회계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국·지방의 협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을 둘러싼 규제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는 선진 대한민국 고등기관에 어울리는 멋진 옷으로 과감하게 갈아입어야만 향후 AI시대를 주도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고, ‘세상에 없는 대학’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지방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도록 하는 ‘마지막 저수지’라고 비유했다. 또 지방대가 획일적 평가제도의 희생양이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지역을 지키는 것은 지방대 출신이라며 지역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 지역대 출신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지역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지역과 사회, 청년들의 미래를 한 폭에 그리다

다양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꿈꾸다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위취득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 결과 우리 대학의 문화콘텐츠경영학과가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원격 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대면 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1년 2월 도입된 이후 2차례 승인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현재 22개 대학(원)의 27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학위과정 중(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국내·외국 대학 공동 과정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운영되는(전문)학사과정 중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 단독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온라인(전문)학사학위과정 신청 결과 7개 대학에서 12개 전공과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신청 분야인 원격교육, 인공지

능·디지털, 지능형(스마트)공장, 교육국제화 등을 고려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준비도 영역 등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준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했고 이번 심사에서 우리 대학 문화콘텐츠경영학과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국내 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의(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혁신 수용성이 높은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혜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은 “이번에 승인된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이 학사과정 단계에서부터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이번 승인심사



▶우리대학 - ㈜하이그라운드 협약식

를 통해 선정된 인공지능(AI), 지능형(스마트)생산공정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이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과 ㈜하이그라운드(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신작 콘텐츠 아이템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선 부총장, 황기현 산학협력단장, 임권택영화예술대학 김대순 학장, Q College 객원식 학장, 방송영상학과 박미선 학과장,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윤대식 교수와 ㈜하이그라운드 김환철 대표, CFO담당 신혜영 부장, CMO담당 송해승 부장, CSO담당 박인혜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작 콘텐츠(영화, OTT시리즈, 디지털 굿즈)의 공동 기획 및 개발과 관련 교육·연구 활동의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작 콘텐츠 아이템 기획 및 개발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신작 콘텐츠 아이템 산학 프로젝트

공동 운영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아이템 개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선 부총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기업에 맞춤형 산학교과목 개설 및 공동운영을 통해 임권택영화예술대학 학생들의 현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영화 콘텐츠 창작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양 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환철 대표는 “동서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참신한 신규 콘텐츠의 발굴로 미디어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MZ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참신하고 기발한 IP(지식재산권) 발굴하여 대중에 선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국민의 삶을 담은 새로운 미래

국가의 건축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권영걸 석좌교수

우리 대학에서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권영걸 교수가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건축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제7기 신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2008년에 출범했다. 국가의 건축정책에서 목표를 제안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에 대해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는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3월에 우리 대학 디자인대학의 석좌교수로 임용된 권 교수는 공간디자인, 조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도시공공디자인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와 미술대학 학장 그리고 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8대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으며 서울특별시 초대 디자인 서울총괄본부장(부시장)과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및 국회공공디자인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또 <신문명디자인>, <공간디자인의 언어>, <공공디자인행정론>,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한·중·일의 공간조형 : 우리의 공간유전자들 찾아서>, <공간디자인16장> 등 43권의 저서를 출간하며 저술과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디자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중에 있다.

권 교수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에서 활발한 교육과 학술활동을 펼쳤다. 또 권 교수는 매 학기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디자인이슈’, ‘색채학’ 등의 교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했고 통찰디자인특강, 국제학술대회, 학술포럼 등 다양한 교내 행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권 교수는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되자 “신문명 시대 국민의 삶을 담은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뿌꾸와 꾸미, 복구를 넘어 세계로!

뿌꾸와 꾸미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뿌꾸와 꾸미 제작팀

우리 대학과 부산광역시 북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북구 소통 캐릭터 '뿌꾸와 꾸미'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쓰이고 있다.

뿌꾸와 꾸미는 LINC 3.0 사업단의 대표적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클래스 셀링'을 통해 개발된 캐릭터다.

과거 구포가축시장의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부산광역시 북구와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메이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작년 11월에 열린 '제2회 부산 북구 동물 사랑 온택트 문화 축제'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캐릭터 개발 디자인에 참여한 웹툰학과 이소희 교수는 앞으로 뿌꾸와 꾸미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담아 웹툰, 애니메이션, 조형물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북구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북구님의 지지가 힘이 돼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동서대학교 웹툰학과와의 전격적, 세계적인 진출을 통해 동거를, 교수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조형물은 부산 지하철 구포역 광장에 설치돼 구포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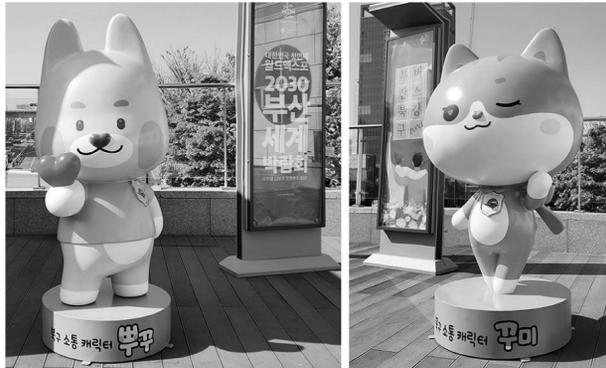
와 지역민들의 포토존으로 활성화돼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웹툰학과는 북구청 공식 SNS를 통해 직접 제작한 웹툰 '뿌꾸&꾸미'를 연재하는 등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 북구청은 뿌꾸와 꾸미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홍보는 물론 캐릭터 콘텐츠 확산을 통한 지역 홍보까지 목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뿌꾸와 꾸미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다.

송지은 (웹툰학과·2) : 우선 부산세계박람회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 홍보에 뿌꾸와 꾸미가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많이 신경 쓴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교수님의 지지가 힘이 돼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동서대학교 웹툰학과와의 전격적, 세계적인 진출을 통해 동거를, 교수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수빈 (웹툰학과·2) : 대규모의 축제에 뿌꾸와 꾸미가 쓰인다는 점에서 뭔가 자식이 취급받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뿌듯함을



▶뿌꾸와 꾸미 조형물

느낍니다. 뿌꾸와 꾸미로 부산세계박람회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의 성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가 제가 사랑하고 몸담고 있는 웹툰 시장의 성장으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뿌꾸와 꾸미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들어줬다.

박람회란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장으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박람회를 관리하는 국제박람회 기구(Bureau International Expositions, 이하 BIE)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교육(education) ▲혁신(innovation) ▲협력(cooperation)이다. 20세기 이전의 박람회가 초산업 혁신의 결과물을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21세기는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도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까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부산의 아름다움과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는 주제다. 또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라는 3대 국제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은 K-POP, 드라마, 영화 등 세계에 영감을 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문화 강국임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부산은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K-Culture의 중심 도시이자 APEC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수많은 국제행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갖추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돼 부산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란다.

김규리 기자
Orlarbfff@gmail.com

밀양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회의 개최

협업 이후 첫 TF팀 회의



▶TF팀 발족 및 회의 현장

우리 대학과 밀양시가 상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상생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협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TF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밀양시 미래전략과장과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장을 각각 총괄 팀장으로 임명해 밀양시 일원 8명, 우리 대학 일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11월, 밀양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한 문화예술 중심의 지속가능 콘텐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 기관은 문화예술·관광·미디어·IT 분야 등 지속 가능 콘텐츠 개발 상호 교류, 국·시책사업 공동 추진, 행사·축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었다. 이번 회의는 두 기관 협력의 첫 걸음이다.

첫 회의에서 두 기관은 문화·예술·I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밀양시는 '명품의열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밀양 공연 예술 축제 프로그램 참여' 등 4개의 사업을 제안했고, 우리 대학은 '밀양시 브랜드 웹툰 제작', 'IoT를 활용한 재활용품 회수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소영 밀양시 미래전략과장은 "정기적인 TF팀 회의 개최로 인해 동서대가 지난 문화·예술·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강점을 시책 사업과 연계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우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은 밀양시의 교류·협력 파트너로서 본 TF팀을 구성점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동반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의열단과 공연예술로 유명한 도시다.

의열투쟁으로 지켜낸 조국의 가치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도시다. 밀양시는 의열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모두에게 독립운동의 참 가치를 보여 주기 위해 최초로 약산 김원필 장군의 생가 터에 '의열기념관'을 건립했다. 또 작년 4월에는 직접 비밀 독립투사가 돼 임무를 완수하고 의열단원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밀양의열체험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공연예술이다. 밀양시는 아시아 공연예술의 중심 도시로, 올해로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와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런 특징은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임관택영학예대학의 모습과 닮았다. 우리 대학과의 협력이 아름다운 도시, 밀양시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더욱 활발하고 쾌적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김규리 기자
Orlarbfff@gmail.com

대선주조 7년의 역사, 광고에 담다

부산 향토 기업과 지역 대학의 협력



▶광고 영상 제작 현장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가 부산 향토 기업 대선주조와 함께 '7년 전 나를 다시 만났다'를 주제로 'CI블루'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광고 영상은 향토 기업과 지역 대학이 협력해 좋은 시너지를 낸 산학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대학이 제작한 광고 영상은 총 4편이다. 광고 영상은 대선주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현재는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CI블루 광고 영상 제작에 참여한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은 올해 초 제20회 서울영상광고제에서 2022년 경찰청의 '가족 사정형 보이소식'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고, 광고제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실적을 보이며 우수한 제작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곰, 사탕, 열정, 도전 총 4편으로 제작된 이번 광고 영상은 아이디어 기획부터 장소 및 배우 섭외, 촬영, 편집 등 영상을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4편 모두 원테이크 촬영 기법을 사용해 구도적 안정감과 주제의 일관성을 잘 담았다.

4편의 광고는 CI블루에 자신을 투영해 고단한 삶을 추억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 곰·도전 편은 '이 허전한 함은 뭘까?'라는 카피로 7년 만에 돌아온 CI블루를 마시며 치열했던 지난 삶을 추억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사랑·열정 편은 '나시 채우고 싶은 시간'이란 카피를 통해 돌아온 CI블루와 함께 겨울이 사랑과 열정을 채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대선주조 공식 SNS 댓글을 보면 '별도 예쁘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네요', '무작정 음주를 권장하는 광고만 보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보니 좋네요' 등 영상 내용을 칭찬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창립 93주년을 맞은 대선주조는 16.5도 무가당 소주 CI블루를 리뉴얼해 출시했다. CI블루는 습계를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이어 문화가 트렌드가 됨에 맞춰 당류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만들었다. 특별한 공법으로 제작됐는데, 대선주조 산하 연구진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음향진동숙성공법'이 그것이다. 음향진동숙성



▶광고 영상 일부

공법은 음악의 과정을 물리적인 진동 에너지로 전환해 알코올과 물 분자 간의 결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기간 숙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희석소 주를 단시간에 제조하는 공법이다.

또 현존하는 당류 중 최고급으로 뽑히는 식물성 원료 '토마틴'을 첨가해 제품의 풍미를 더욱 높여줬던 CI블루를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했다. 새롭게 태어난 CI블루를 계기로 주류 시장에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광고 영상 제작에 참여한 성민재 학생은 "대선주조에서 저희를 믿고 제작 요청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업과 함께 제작한 상업 광고는 처음이라 부담감이 컸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팀원들과 더 집중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는 올해 들어 광고 영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폭넓은 발전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김규리 기자
Orlarbfff@gmail.com

도서관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

민석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방문



▶교향악단의 공연

지난 4월 12일, 우리 대학 민석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민석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민석음악회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이성호 비올리스트, 이은옥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미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바이올린, 비올라 듀오 리사이틀을 선보였다.

민석음악회에는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평생교육원 관계자, 학부모, 사상구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동서대 가족이 방문했다.

음악회는 이성호 비올리스트, 김유미 피아니스트의 ▲G. Faure : <Après un Reve>를 시작으로 ▲W.A.Mozart : String Duo No.1 in G major for Violin and Viola, KV.423 1악장 ▲M.Ponce : J.Heifetz : <Estrellita>(My little Star)를 거쳐 ▲F.Schubert : <Der Erlkonig> Duo for Violin and Viola까지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1962년 창단 이후 6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의 오케스트라다. ▲초대 지휘자 오대균 ▲2대 한병할 ▲3대 이기홍 ▲4대 박종혁과 함께 발전했으며, 1988년 부산 문화회관의 개관과 더불어 전문 오케스트라 형식을 완성했다. 이어 국내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 ▲6대 블라디미르 킨 ▲7대 반초 차브다르스키 ▲8대

박승 ▲9대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10대 리신차오 지휘자가 악단을 맡았다.

현재는 11대 예술감독인 최수열 지휘자가 악단을 이끌고 있다. 최수열 예술감독 취임 이후 안정과 도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쥐고 발전하고 있다. 최수열 예술감독 특유의 모험적인 프로그래밍과 기획력, 젊은 에너지와 리더십이 관공의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만나 개성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무계감 있는 정기 연주회부터 리하설의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 미완성 음악회, 교향곡 한 곡만을 해설과 함께 연주하는 심포니아 등의 다양한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용과 시도를 콘서트로 하는 심야 음악회 및 실내악 시리즈 등 다양한 기획 음악회를 통해 음악적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5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의 단체에서 다양한 연주회, 공연, 프로그램 등을 기획 중이며 관심 있는 이들은 부산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정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김규리 기자
Orlarbfff@gmail.com

일학습병행 첨단 산업 아카데미 선정

부산 지역 유일한 선정 기관



▶아카데미 운영 약정 체결식

우리 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래 첨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 첨단 산업 아카데미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은 부산 지역 유일한 첨단 산업 아카데미 선정 기관으로, 사업 기간은 3년 동안 연간 7억 원씩 최대 21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통해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의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첨단 산업 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다. 독일, 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에 맞게 재설계한 한국형 도제 훈련이다.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도 인정받아 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 위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NCS 필수 능력 단위 기반의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을 통해 국가 직종의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다.

첨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디지털 실무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훈련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미래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을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 엔지니어링 ▲가상훈련 콘텐츠 SW 개발 등 10개,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장비 개발 등 5개,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 ▲연료전지 에너지 생산 기술 ▲폐자원 에너지 생산 기술 등 8개의 분야를 배울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확인 바란다.

해당 훈련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분야에 따라 1년 동안 최소 600시간에서 800시간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학습병행 4기 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장기 현장 실습생 554명, 학습 근로자 138명을 양성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이들과 함께 2022년도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일학습병행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가지기도 했다. 총 13개 기업이 사업 참여와 학생 지원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또 작년 사업 참가 학생 중 12명의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상장과 장학금 수여 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지난 5년 동안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간의 사업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2월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약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지역 내 첨단 산업 분야 및 중점 산업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업 수요 맞춤형 관설텐 솔루션과 선도적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 협력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방송영상학과 18학년 안영진 학생 작품

“동서대만의 특성과 교육과 NCS 필수 능력 단위의 기반의 교육을 통해 지역 내 미래 첨단 분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기업과의 상생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약정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공단의 일학습병행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IPP형 일학습병행사업단은 국내 대졸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은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은 신입 사원의 과다한 재교육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학생들에게는 직무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게 해 사업체와 대학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만큼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더 힘쓰도록 하겠다.

김규리 기자 Orlarbftf@gmail.com

정도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장은

아이디어를 차곡차곡!

AI·SW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빌딩 캠프



▶아이디어 빌딩 캠프 참여자

우리 대학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문 기관으로 참여하고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2023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우리 대학은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게 된다.

디지털 배움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자체가 추진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다.

디지털 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소외 계층이 증가하며 1인 가구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의 자동 주문기나 무인 가게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그 예시다. 이것이 더 큰 사회문제로 커지기 전,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 5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구·군 담당자, NIA, 우리 대학 SW 중심대학사업단, KT CS, 스마트소셜 등 디지털 배움터 사업단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착수 보고회'를 개최·참석했다.

디지털 배움터의 강사와 서포터즈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인제 440명을 채용했다.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 청년, 퇴직자 등을 교육해 디지털 인재로 발굴해 강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부산 전역 16개의 구·군 거점 센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존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에듀버스와 에듀카, 132개소의 배움터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교내에 2개의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하고 AI·SW 분야의 전문 교수 특강을 통해 콘텐츠 개발, SW 코딩 등의 다양한 교육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산 지역 특성과 다양한 계층 및 학습 수준을 고려한 특화 분야 체험존을 통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민 교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통해 부산 시민들을 위해, 또 디지털 트윈 시대를 맞아 AI와 SW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친근하게 다가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tf@gmail.com

지속적인 협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한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우리 대학-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업무협약식

우리 대학은 EBS와 공동으로 세계 지성의 부산 초청 강연 및 교육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세계 지성과 국내 전문가의 콜라보를 통한 시민 개방형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부산을 비롯한 글로벌 시민 누구나 고품질 교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란 밝혔다.

또 우리 대학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세계 지성 부산 초청 강연을 공동유치하고 이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교육 콘텐츠 공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란 밝히기도 했다.

양 기관은 21일 우리 대학 글로벌 특색과 고품질 글로벌 교육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활용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세계 지성 부산 초청 강연 공동유치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대학 교양 및 전공 교육을 위한 <GREAT MINDS> 등 EBS 콘텐츠의 활용 ▲우리 대학의 글로벌 오픈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우리 대학의 특색화 분야인 문화콘텐츠 관련 R&D 및 인력양

성 등에 긴밀하게 협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5천 개 이상의 명품 강의 콘텐츠를 만들 여념 EBS의 검증된 역량과 그간 미래형 대학으로의 혁신을 거듭해온 우리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화·영상·콘텐츠, 디자인, IT 분야의 특성화된 인프라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고품질 명품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공유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양 기관은 연내 세계 지성과 국내 전문가의 콜라보를 통한 수업 설계, 온라인 명품 교육 콘텐츠 제작, 나아가 이를 대학 수업 및 글로벌 오픈 강좌로 활용하는 '오픈 아카데미'의 구축을 바탕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장재국 총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상생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 유치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오픈 교육 플랫폼 서비스가 조성된다면 오픈 아카데미의 명품 강의를 부산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와 사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대학의 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는 지난 3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인력개발 센터(관장 김경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제공 ▲여성의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지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훈련 ▲구인 또는 구직을 위한 발걸음 및 취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 협약의 첫걸음으로 우리 대학 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는 사상구 여성인력개발 센터가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부산 지역 인문/사회계열 여대생들이 부산에서의 취업 성공 및 직업을 가진 커리어우먼으로 살아가는데 동기 부여가 될 프로그램”으로 주제 선정이 됐고 2023년 상반기에 개발해 하반기에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취업 책 소개 - 청소년심리학과

진정한 공감의 의미



▶청소년심리학과 아몬드

벌어지는 끔찍한 사태를 윤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혼자가 돼 버린 윤재에게 같은 반 학생이 짓궂게 묻는다. “눈 앞에서 할머니랑 엄마가 죽으니 어땠냐?” 그 물음에 윤재는 아무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후 윤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특별한 친구 곤이와 도라를 만난다. 부모님이 실종되고 불량 학생으로 살아가는 곤이. 그는 역설적으로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더욱 악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 불능이었던 윤재에게 곤이의 분례 모습을 편견 없이 볼 수 있었고, 감정이 풍부한 곤이였기에 윤재에게 마음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도라를 만난 윤재. 그는 그녀를 ‘예쁨의 발걸음’이라고 표현한다. 도라를 만나고 사랑과 비슷한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두 친구를 통해서 윤재는 조금씩 변하게 된다. 과연 엄마와 할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윤재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진정한 공감, 그리고 용서와 사랑. 이 이야기 속에는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따뜻한 사람들로 인해 윤재라는 한 소년이 성장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현실에서 가정을 벗어난 아이들은 공감보다는 사회적 낙인이나 격리를 당한다. 할머니와 엄마가 부재한 윤재,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곤이. 이들이 현실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된다. 진정한 공감이 문학 작품을 넘어서서, 현실에서도 적용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청소년들이 더 웃고, 더 사랑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책 <아몬드>.

우리 학교 청소년심리학과 재학생들도 이 책을 통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열원과 학생들을 향한 뜨거운 꿈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

정연연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THANKS :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감사하는 표현 알아보기



- 책 제목 : THANKS :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 책 저자 : 로버트 A 이먼스
-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로버트 A 이먼스의 'THANKS :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은 감사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책의 첫 장에서는 감사의 중요성과 감사의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려 한다. 저자는 감사가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내면의 안정감을 높이며, 삶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놀랍고 신비로운 힘이라고 말한다.

감사가 뇌 과학적인 면에서도 입증됨을 언급하며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 장에서는 감사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감사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신체적 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한다. 또한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연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문구를 매일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 등이 그 예시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해 나가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감사의 태도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방법, 감사의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루며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과 예시를 제시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도전 과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룬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감사의 태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매우 이론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연습과 교과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로버트의 책은 매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저자의 이론과 예시 그리고 연습문제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독자들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은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방법과, 이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을 제시한다.

또 감사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지를 설명한다. 독자들이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감사의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감사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감사의 발견은 감사의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감사의 태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또 이를 유지하면서도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감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책에서의 방법들을 응용해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진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주먹왕 랄프 2 : 인터넷 속으로



- 영화 제목 : 주먹왕 랄프 2 : 인터넷 속으로
- 영화 감독 : 필 존스톤

영화 '주먹왕 랄프 2 : 인터넷 속으로'는 주먹왕 랄프 시즌 1에 이어 약 6년 만에 나온 작품이다.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디즈니에서 선보인 영화인만큼 많은 관객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무려 175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어느 평범한 동네 오락실에 자리 잡은 한 오락기가 고장 나면서 이야기는 흘러간다. 오락실 사장인 고장 난 오락기의 부품을 인터넷에서 찾아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오락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한다. 게임 속 두 주인공인 랄프와 바넬로피는 버려질 위기에 처한 오락기 부품을 찾기 위해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 속으로 접속하게 된다.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게 된 그들은 오락기 부품 경매가 진행 중인 곳으로 가게 된다. 랄프와 바넬로피는 마침내 찾고 있던 오락기 부품을 발견하게 된다. 오락기 부품을 가져야만 했던 랄프는 너무나도 많은 가격을 불렀고 결국 낙찰되고 만다.

우정은 짐작하는 것이 아니야!

랄프와 바넬로피는 오락기 부품값을 지불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슬로터 레이스'라는 게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슬로터 레이스에서 만난 게임 속 NPC들은 랄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그로 인해 랄프는 순식간에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았고 그 덕에 유명 인사가 됐다. 동영상의 파급력은 점점 향상됐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게 된 랄프는 오락기 부품을 살 돈을 마련하게 된다. 랄프는 오락기 부품값을 지불하고 바넬로피와 함께 집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하지만 바넬로피는 슬로터 레이스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짜릿함에 인터넷 세상 속에 남아있고 싶어 한다.

랄프는 그런 바넬로피가 인터넷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나오길 바라 슬로터 레이스에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게 된다. 슬로터 레이스 안에 있던 바이러스는 바넬로피에 대한 집념을 가진 수많은 랄프 복제본을 만들어 낸다. 복제본 가짜 랄프들은 하나의 거대한 랄프 모양으로 합체하여 인터넷 세상을 망가뜨린다.

랄프는 자신의 짐작이 인터넷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바이러스 복제본이 합쳐져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 랄프는 거대한 복제 랄프에게 우정은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걸린다. "바넬로피가 어디로 가던지 무조건 믿어줘야 돼. 단짝 친구라면 원래 그 그래"라며 랄프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다. 랄프의 진심이 통해 거대한 복제 랄프는 스스로 소멸하게 됐다. 소멸함과 동시에 어두워졌던 인터넷 세상은 다시 원상 복구되면서 안정을 되찾는다.

랄프는 인터넷 세상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우정은 짐작하는 것이 아님을 되새기게 됐다. 랄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바넬로피는 남아 있고 싶었던 슬로터 레이스에 계속 남게 됐다. 랄프는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 바넬로피는 새로운 게임인 슬로터 레이스를 선택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두 주인공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함께인 채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상통화를 즐겨하며 그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계속 이어진 채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영화 속 두 주인공은 대비되는 점들이 많다. 몸짓, 성격, 가치관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상극'이라서 더 잘 맞는다'는 말이 자못으로 때로는 정도로 랄프와 바넬로피는 최고의 공감을 자랑한다. 랄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넬로피가 도움을 주고, 바넬로피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랄프가 도움을 주는 등 서로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아보자면 바넬로피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바넬로피는 기존 게임인 '슈가 러시'에서 정해진 길로만 달려야한다는 것에 지쳐있었다. 그러던 중 슬로터 레이스에서 본 인이 가고 싶은 길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짜릿함에 빠진다. 결국 바넬로피는 슬로터 레이스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게 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기에 대단하다고 느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무겁지 않고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다. 특히 우정과 인터넷이라는 소재를 결합하여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김나현 수습기자

오래된 것의 가치를 믿다

감사의 마음을 꼭꼭 눌러담아



▶편지 쓰는 모습



▶사진 출처 - 교육부

#인간독

대화를 시작하고는 한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 상대방의 건강, 환경, 동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사과 편지, 위로 편지, 연애 편지 등 편지를 쓰는 목적은 정말 다양하다.

특히 5월에는 어버이날부터 스승의 날까지 감사 편지를 쓸 날이 많다. 평소 애 낳지 않던 편지 못했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간지러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듣고 거부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도 일기, 편지 등 아날로그 감성이 되쳐지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직접 적은 손편지라면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있다. 그렇다면 편지를 잘 쓰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

#편지 쓰는 순서

편지를 쓰는 데도 순서가 있다. 먼저 받는 이의 호칭을 적는 것부터 시작한다. 호칭을 적은 후에는 인사말을 정한다. 인사말의 경우 계절, 상대방의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어울리는 인사말을 적어야 한다. 통영이든 서양이든 편지의 시작은 늘 날씨와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빌려 적기 마련이다. 실제로 만났을 때도 "맑이 덥지?", "오늘 날씨 좋다" 등 날씨 이야기로

#편지 잘 쓰는 법

편지를 자주 주고받던 조선시대에는 한글 편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지침서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인간독'이다. 간행일은 1886년 하한선으로 추정되며, 현존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목판 1권에 상하면으로 나눠지고, 전체 30장으로 이뤄져 있다. 사대부가의 부녀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편지 쓰기 교과서 역할을 했다.

#인간독

편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편지를 쓰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밝히지 않으면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이다.

또 최소한 한 장 이상은 적어야 한다. 짧게 적은 편지는 읽기도 전에 감흥이 끝난다. 편지 쓰는 이의 마음이나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상편에서는 일반 가족과 이웃 사이, 하편에서는 신부가 올리는 문안지 계통을 주로 다뤘다. 편지마다 봉투의 서식을 앞어 신고, 이후 사연의 본문과 맺음말을 격식에 따라 예문을 지켜 제시했다.

마지막에는 고목 편지의 예문 하나가 있다. 고목은 낮은 하인 또는 관속이 상전에게 올리는 편지로, 신부의 문안지 형식을 준하면서 조흔 표현을 극대화했다.

#편지 지

편지의 분위기는 말투, 글씨체,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정한다. 편지지도 이 요소 중 하나다. 편지지의 질감, 색깔, 디자인에 따라 편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부산 전포에는 각종 편지지만 모아 판매하는 소품샵이 있다. '포셋'이라는 곳인데, 서울 연희동에만 매장을 갖고 있다가

부산 전포에도 분점을 오픈했다.

전포동은 1020대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 소품샵 등 요즘 문화가 묻은 '전포 카페거리'와 찻물집, 전자기기점, 도매상가 등 오래된 가치와 시간을 지키며 유지 중인 '기계 부속 골목'이 공존해 있는 동네다. '편지'라는 매체가 옛부터 지금까지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남은 것처럼 전포와 편지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다.

포셋은 'postcard library'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다. 편지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 역시 도서관 책장을 꼭 나열한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편지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감성적인 데이트 장소로도 좋을 것 같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의 힘을 의식하고 잘 믿지 않고는 한다. 주변 사람에게 솔직하게, 자신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내 마음과 애정을 여과 없이 나눠준다면 나 역시 주변 사람들과 더 여러 마음과 애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편을 들자. 엄지손가락을 두들겨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편을 들어 마음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담아 전해보자. 마음을 전하는 데에 특별한 계기는 필요하지 않다.

김규리 기자
Orlarbft1@gmail.com

축제·공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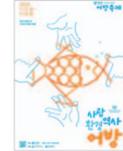
2023 제50회 부산 어린이날 큰 잔치

- 기간 : 2023. 5. 5. (금)
- 장소 : 영화의 전당
- 주최 :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 입장료 : 무료



2023 조선통신사 축제

- 기간 : 2023. 5. 5. (금)~5. 7. (일)
- 장소 : 조선통신사역사관
- 주최 : 부산문화재단
- 입장료 : 무료



광안리해변축제

- 기간 : 2023. 5. 12. (금)~5. 14. (일)
- 장소 : 광안리 해변, 수영사적공원 일원
- 주최 :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위원회
- 입장료 : 무료



2023 ECO 챌린지 낙동강 자전거 페스티벌

- 기간 : 2023. 5. 13. (토)~5. 14. (일)
- 장소 : 낙동강문화관
- 주최 :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낙동강문화관
- 입장료 : 무료



해운대모래축제

- 기간 : 2023. 5. 19. (금)~5. 22. (월)
-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광장
- 주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입장료 : 무료



부산원도심골목길축제

- 기간 : 2023. 5. 20. (토)~5. 21. (일)
- 장소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원도심 4개구 일원
- 주최 : 부산광역시
- 입장료 : 5000원(1인 기준)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베스트 컷

- 기간 : 2023. 5. 27. (토)
- 장소 : 광안리 해수욕장
- 주최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입장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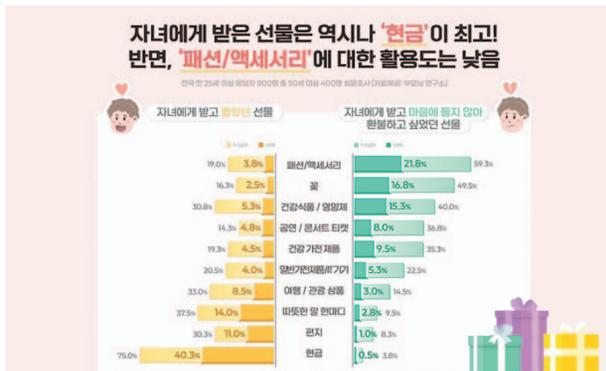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드릴만한 어버이날 선물



▶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

▷ 사진출처 - FOX31 reviews



▶ 부모님이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선물

▷ 사진출처 - 부모님 연구소



▶ 가족사진

▷ 사진출처 - unsplash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이 달엔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이 존재한다. 당신은 이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대개는 편지, 선물, 요리 등의 수단을 이용해 기념한다.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상 생각해 보면 떠오르지 않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생각하면 더욱이 말이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부모님 선물 목록을 준비해 봤다.

부모님 세대가 선호하지 않는 선물

선물을 준비하기에 앞서 사전 조사는 필수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선물을 선호할까? 가장 높은 선호도의 선물을 소개하기 전에 선호도가 제일 낮은 선물부터 알아보자. 부모님 연구소의 <부모님 선물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은 활용도가 낮은 선물을 비선호한다고 한다. ▲패션 ▲액세서리 ▲꽃 선물 등의 선호도가 제일 낮았다. 그다음은 ▲건강식품 ▲영양제다. 이런 선물은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건강이 걱정될 때 상시에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다음으로는 ▲공연 ▲콘서트 티켓 ▲건강 가전제품 ▲일반 가전제품 ▲IT 기기 ▲여행 상품 ▲관광 상품 순으로 비 선호도를 나타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일을 하시거나 체력적으로 힘이 드신다면 공연을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갈 체력이 없으실 것이다. 가전제품도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기에 선호도가 낮은 모양이다. 이러한 선물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고 싶었던 선물이라고도 한다.

부모님 세대가 선호하는 선물

제일 높은 순위로 꼽힌 선물은 바로 ▲현금으로 다른 선물에 비해 2배나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 현금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선물은 놀랍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의외로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선물로

서 효용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편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한다. 이를 통해 평소엔 자녀들이 부모에게 표현을 적게 함을 알 수 있다. '부모님 연구소'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날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최고예요'라는 말을 듣고 가장 행복했다고 한다. 그다음으로 ▲편지 ▲건강식품 ▲영양제 ▲건강 가전제품 ▲일반 가전제품 ▲IT기기 ▲패션 ▲액세서리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선물 트렌드

이번에는 부모님의 선호도에 따른 선물 이 아닌, 자녀들이 선물하는 선물의 트렌드를 살펴보자. 제일 많은 선물로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선물인 인기가 높고 있다. ▲건강 보조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웃 ▲가방 ▲신발 등의 선물이 트렌드라고 한다. 그 외에

휴식이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인 ▲스프 관련 상품 ▲여행 패키지 ▲캠핑 용품 등이 있다. 또한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 ▲가전제품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미는 경우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외 추천 선물

자녀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로 현금이 제일 좋겠다. 자신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카네이션 꽃과 함께 편지를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 부모님은 활용성이 낮은 꽃 선물을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편지를 선호하기에 둘을 같이 선물하면 꽃의 선물 가치는 높아질지도 모른다. 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화장품 선물도 괜찮다.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나이를 먹을

수록 주름이 고민이라고 한다. 팬션은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면 그런 화장품 선물도 괜찮을 듯하다. 어버이날 가족들과 다 같이 휴양을 해보는 건 어떨까? 부모님의 지친 피로를 풀어 줄 기회다. 여행과 관광보다 호캉스, 스파 위주로 정적이지만 쉼의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선물을 전하는 나의 마음이 선물 안에 깃들어야 한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과 사랑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단순한 문장같이 보이지만 기념일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기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다. '뜻깊은 일이나 사건 등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달려온 부모님 세대의 기념일이 준비해 보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자료 출처 : 부모님 연구소 Oxford Languages, ChatGPT 정은영 수습기자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

다양한 장르와 취향을 저격한 영화들



▶ 영화 엑시트

▷ 사진출처 - 씨네21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 사진출처 - iStock



▶ 영화 인사이드 아웃

▷ 사진출처 - 인사이드 아웃 예고편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5월이 됐다. 열심히 공부하고, 텃밭들과 과제까지 해낸 나를 위해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마다 취향도, 나이도 다르기에 함께 볼 영화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보기 좋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 영화들을 통해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지.

국제시장

스타 감독 윤재균 감독이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다. 탄탄한 스토리와 흥집을 데우는 연기력으로 전만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한국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흘러간 시간과 사건을 선명하게 이야기한다. 국민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덕수'라는 아버지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가족들을 위해 그저 웃어 보이고 눈물 흘리며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떠안으면서도 재밌게 보여 준다. 가족들과 함께 안타까운 시절을 기억하며 서로 잠시 잊었던 사랑과 그리움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편타지를 좋아한다면 비밀스러운 초콜릿 공장 이야기는 어떨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는 로얄도 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편타지 장르의 대가인 팀 버튼 감독이 연출했다. 초콜릿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원키는 5개의 초콜릿 공든 티켓을 세상에 흩어놓는다. 이 티켓을 찾은 다섯 명의 아이들을 초대하여 초콜릿 공장을 관람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

찰리와 티켓을 통해 초대된 다섯명의 아이들은 초콜릿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팀 버튼 감독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시각적인 요소에 잘 녹여내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화에서 찰리와 아이들이 겪는 특별하고 이상한 사건은 어른들이 보아도 꼭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야기이다. 재능과 인내, 도전과 성취를 다루는 이 영화, 가족들과 감동스럽고 유쾌하게 보기 좋을 것이다.

엑시트

이 영화 제목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코믹 연기의 대가인 배우 조정석과 믿고 보는 연기꾼 배우 임윤아가 주연으로 출연함으로써 처음 화제를 모은 영화다. 산악등반이 화원으로 쌓아놓았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이용남. 도심 전체에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지게 되고 탈출을 위해 갖은 기지와 스킬을 이용하며 돌의 탈출기가 시작된다. 이야기 속 재난은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사건이지만 명배우들의 코믹한 케미로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또한 극적인 상황에서 탈출을 향해 끝까지 서로 돕고 달리는 가슴 따뜻한 액션 재난 영화이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믿는가? 누구나 사랑을 시작하기 쉽지만 그게 영원하기란 쉽지 않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일평생 영원했던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이다. 89세 소녀감성 강계열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보만 할아버지의

76년간을 사랑을 이어오며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피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다. 서로 정난도 치며 항상 서로를 존댓말로 존중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은 할아버지가 아끼던 강아지의 죽음으로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두 분의 사랑은 이별을 준비하게 된다.

노부부의 리얼한 사랑이야기는 독립영화임에도 480만 명의 관객을 울렸다. 마지막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켜켜히 울리는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 영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울 수 있는 영화다.

인사이드 아웃

앞의 영화로 한껏 울었다면 이번엔 감정 캐릭터들의 귀여운 이야기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이 영화에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빙빙 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주인공 라일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 라

일리는 사춘기 소녀로서 새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울음이 팽 터질 때면 감정 캐릭터 슬픔이가 본부를 이탈했던 것이고, 불행하고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버럭이가 나서 준다. 머릿속의 세모들을 의인화한 세계관은 우리 사회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아이들이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오히려 어른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시사한 영화다. 아직도 명작으로 회자 될 만큼 유쾌하고 감동적인 영화 <인사이드 아웃>, 평소 감동보다 이성을 중시하고 싶었다면 감정의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영화는 우리에게 평소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공감해 준다. 함께 영화를 보며 내게 공감해 줄 가족이 있다는 것, 같이 웃고 즐길 가족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단순히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영화 같은 장면이 되지 않을까. 정나연 수습기자



감사한 마음 찾기

한채리 (치위생학과·2)

무사히 1학년을 끝내고 2학년으로 개강하고 어느덧 중간고사 시기가 찾아오는 4월 중반의 시간이 됐다. 약 1년 2개월의 대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전공수업을 들으며 학과 생활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개무 생활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주치게 된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이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듣기 위해 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올라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초등학생 2명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 숙제의 내용은 3월 동안 하루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일 3가지씩을 활동지에 적어오라는 내용이었다.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옛날 추억하나가 떠오르게 됐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감사통장을 썼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에 했던 것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감사통장 마음을 먹게 돼 기간이 길면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아 딱 하루만 해보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이 됐다.

감사한 일 찾기 당일,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에 버스에 타려고 했는데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버스에 차가 너무 많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서있기도 힘든 날이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을까? 버스 좌석에 앉았을 때 주머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대신 가지고 있어 주시겠다고 하셨다. 처

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자기는 앉았으니깐 괜찮다며 내릴 때까지만 들고 있어 주시겠다고 하셨다. 아주머니의 사소한 친절이 내겐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학교에 무사히 도착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다음 일정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센터로 곧장 갔다. 운동할 때는 머리 끈을 꼭 가지고 가야 하지만 아침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머리 끈을 챙기지 못했다. 사소한 부분 하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를 보시던 감사남께서 머리 끈을 빌려주셨다. 그날 나는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집에 왔더니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부모님께서 영양제를 사주셨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내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찾기가 어려울 거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보니 생각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감정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마음인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 중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사람과 마주칠 것이다. 친구와 대인관계를 만들어 가고, 모르는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나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소소하게 찾아오는 행

복, 나에게 찾아온 행복에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들었던 말 하나가 있다. "남에게 베푼 이익을 기억하지 말라.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바이런의 말이다.

나도 예전에 몸이 아파 불가피하게 전공수업을 빼졌을 때, 필기하지 못한 부분이나 수업 시간에 전달해 주셨던 중요한 공지 같은 내용을 친구들이 대신 전해주고 챙겨줬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해주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익은 당장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게 고마운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버려 때 막상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르는 척의 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로 인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사람이 무심코 했던 말, 도움의 손길 하나로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또한 제2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실천해나간다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 감사할 일을 몰아다 줄 것이라 믿는다.

죽비소리

만개할 미래, 나의 꿈

김민정 (일본어학과·3)

새로운 설렘과 두근거림, 약간의 긴장을 담았던 3월이 지나가고 5월이 찾아왔다. 개강 첫날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동기들이 있을지 긴장하며 집을 나섰다. 4월에 들어선 지금은 어느덧 익숙해진 학교와 수업들,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연도,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 새롭다는 건 설레고 기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오래 그렇듯 새로운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결심했던 마음대로 지내고 있는지, 어떤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나는 올해 편입생으로 동서대학교에 들어왔다. 편입을 해서 학년은 3학년이지만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 새로웠다. 개강하기 전부터 고민이 정말 많았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게 될지, 주로 1학년 전공을 듣게 될 텐데 신입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이다.

전적대에서 보던 관련 전공을 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한 전공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길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길게 생각해 봤다.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어라는 걸 깨달은 후 동서대학교로 편입을 선택했다. 전적대에서 하던 전공과는 아예 정반대 전공을 선택한 셈이다. 그래서 언어 전공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했다.

개강 첫날 두근대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학교에 갔다. 많은 동기들 중에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을 사귀 수 있었다. 현재는 그 친구들과 내가 기대했던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같이 수업도 듣고, 점심도 먹고, 다 같이 모여 공부를 하기도 하고, 놀 때는 바다를 구경하러 가거나 술도 마시며 즐겁게 지낸다. 내가 상상했던 생활이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나는 동서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혼자서 일본어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의 기초는 아는 수준이었다. 언어학과 특성상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때 일본어를 알려주곤 한다. 다들 처음엔 어려웠다. 이제는 곧잘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선후배로서 정말 뿌듯했다.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것이 나에게도 공부가 되었다. 그렇기에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현재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 학교와 자체결연을 한 일본 대학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학과 수업 진도보다 훨씬 앞서 나가, 일본어 능력 시험(JLPT)을 준비 중이다. 지금 듣는 학교 수업 수준보다 앞서기 때문에 벼락 때가 있다. 그럴 땐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공부한다. 자격증 시험을 위한 공부는 예습이 되고,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에게 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복습이 된다.

수업 공부와 함께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기에 힘들거나 지칠 때도 있다. 그렇지만 미래에 성장할 나를 그리며 열심히 하는 중이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처음에는 실력이 느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예전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어가 많아지고,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생겨났다.

편입하기 전 전적대에서 내 목표는 편입에 성공하는 것이었다. 편입에 성공하여 동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의 꿈은 일본어 능력 시험(JLPT)에 합격하고 교환학생에 선발되어 1년간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다. 그 후에는 일본 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인 4월 학교 교정엔 벚꽃이 만개해있다. 겨울에는 초라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무는 봄이 오길 기다리며 스스로 변화를 맞이할 준비한다. 마침내 봄이 왔을 때 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활짝 핀 벚꽃으로. 나도 벚꽃처럼 지금 당장은 터진 것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꿈을 위해 바꾼 이 일본어 전공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이루고 싶은 꿈에 가까워지며 만개하고 싶다.

지금 계절은 봄이지만 자신은 겨울을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은 반드시 온다. 각자의 봄이 올 때까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결실을 맺어 만개하자. 그 해의 봄에는 벚꽃과 함께 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이달의 명언

건강과 명상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조셉 에디슨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토머스 제퍼슨

건강한 몸은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몸은 감옥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네 컷 만화

생각의 혁신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기회를 빌어 고마웠던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UN은 질병 발생률이나 자살률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10만 명당 20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이를 '범죄 계수'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5천만 명으로 가정할 시 마약 사범은 1만 명 이하로 억제해야 안전하다. 국내 마약사범 검거 추이를 보니 2014년 9,984건에서 2020년 18,050건으로 7년 만에 두 배로 경증 뒀었다.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신음시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범죄의 전체 비율 중 10~30대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1년 8~10월 검거된 마약사범 1,956명 중 연령대별 비율에서 20대 742명(37.9%), 30대 572명(29.2%), 10대 51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0~30대 청년층 인원이 1,365명(69.7%)으로 전체수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마약이 표면상 수치보다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게 침투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인 암수범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2019년 경찰연구 학회 발표에 따르면 2만 명의 20~30대, 약 50만 명의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 중일 것으로 예측한다.

인간누에일 칸트는 그의 저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인간에게는 선의 소질이 있으면서 동시에 악의 성향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실천이성 비판>을 저술할 때까지만 해도 당대 계몽주의자들의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 입장에 함께 하던 칸트가 인간에 대해 비판론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칸트는 악의 성향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인간의 '허약성'이다. 둘째는 인간적 심성의 '불순성'이다. 셋째는 인간적 심성의 '사악성'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마음은 있지만 선을 실천할 힘이 없는 허약성, 순수한 뜻 보이나 불순한 의도를 숨긴 불순성, 자기중심성으로 도덕적 법칙의 의무를 전도시켜버리는 '사악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KBS 시사 직격>이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2022년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에서 마약을 접한 한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마약을 투약한지 1년 만에 살이 40kg 빠졌다. 54kg의 체중이 38kg까지 빠졌고, 마약에 중독된 탓에 3살과 5살 된 두 아이를 전혀 돌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그녀

마약과 인간의 악

의 어머니는 딸의 아이를 돌보며 매일 눈물을 짓고 가슴 앓이를 한다. 어머니는 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찾는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 몰래 마약을 주문해 투약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노라면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죄인인가를 새삼 깨닫는다. 마약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공급이 쉬워졌다는 반증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비대면 전달이 된다고 한다. 의약 처방 없는 마약 사용이 불법임에도 도덕 법칙의 의무를 전도시키는 '사악성'을 따라 마약 판매를 계속 늘리고 홍보한다. 마약을 권하는 이들은 순수한 뜻 보이나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여 마약을 접하게 하므로 중독시키는 죄를 범한다. 이를 볼 때 인간의 악에 대하여 '허약성', '불순성', '사악성'의 존재라는 칸트의 지적은 적확하다. 신약성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 하면서도 나에게

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인간이 악에 대하여 얼마나 허약한가를 말하고 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리요...'라고 인간의 악이 내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결국로는 순수해 보이거나 인간이 불순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없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악 그 자체다. 그러므로 칸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2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와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道)를 배워야 악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사설

음주운전, 조심 또 조심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8년의 징역형에 처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낼 경우 특별하게 형량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취지가 보인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처벌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양형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법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 법안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게 되는 성격이지 따로 법안이 형을 선고할 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형을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는 최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게 된다면 평소 반응하는 속도보다 더욱 둔화되고 판단력 또한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한다면 무책임한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더욱 엄중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대중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일정 정도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

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매우 긍정적이다.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축적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 또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 수치 0.08%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많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0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수치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적게는 1년 이상에서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면허 취소'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것이다.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 학생 인터뷰 - 뮤지컬학과 장수빈 학생

전국노래자랑에서 우리 대학을 알리다!

전국노래자랑 경상남도 양산편 인기상 수상



▶ 뮤지컬학과 3인조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

전국적으로 유명한 TV 프로그램인 KBS전국노래자랑(2015회) 경상남도 양산 편에서 '하나 하나'라는 곡으로 인기상을 타게 된 뮤지컬학과 3인조 중 대표로 장수빈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특산물로 미나리와 삼겹살, 딸기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제가 본가가 양산이기도 해서 양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양산 원동에 유명한 미나리와 딸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하면 삼겹살이어서 삼겹살도 구워서 같이 나왔습니다.

Q. 음식물이 구워진 상태로 나왔었는데 힘들지는 않았나요?

A. 사실 그때 시청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도와줘서 저희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Q. 음식들을 MC분과 밴드 분들께 직접 들고 드시라고 하셨는데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상황이었나요?

A. 음식을 MC분과 밴드 음악가분들께 직접 드시라고 제안한 것은 공연 전까지도 저희가 모두 함께 준비해 온 특산물들을 먹어 보면서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즉흥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지만, 공연 중에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MC분과 밴드 음악가분들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농도 있는 피드백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더욱 재밌고 즐거운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Q. '하나 하나'라는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끼리 많은 곡을 불러봤는데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알 법한 노래가 나와야 다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제일 즐길 수 있는 곡을 선정하여 부르고 춤추기로 정했습니다.

Q. 공연 중 실수는 없었나요?

A. 네 뮤지컬학과는 거리가 먼 트로트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지만, 방학 때 만나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추며 연습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뮤지컬학과 답게 기를 최대한 보여 주고자 했고, 연습 기간 때 서로서로 도와주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서로 응원하며 긴장감을 풀고 공연하니 실수는 없었습니다.

Q. 인기상도 대단하지만 더 큰 상을 수상하고 싶은 욕심은 없었나요?

A. 당연히 더 큰 상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무슨 상을 탄다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자랑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같이 즐기고 추억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상보다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예선 도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양산 편에 지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웃기고 캐릭터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중 저희 팀이 뽑혔고, 1차 심사 보기 전에 잠깐 긴장 푸는 장거 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으로 합격하여 1차 예심도 보지 않고 바로 2차 예심으로 넘어가서 신기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A.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동서대 뮤지컬학과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같이 학생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큰 기회, 작은 기회가 와서 뭐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어 갈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전국노래자랑에 나가게 되면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잠깐 스쳐 가는 기억이 아닌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행복한 기억과 추억들을 자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진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중국어학과 박현주

도전에 의미를 두고 시작하라!

제17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콘텐츠 대상' 수상



▶ 중국어학과 20학번 박현주 학생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을 거친 결선 진출자 중 콘텐츠 대상을 받은 중국어학과 박현주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박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현재 중국어학과에 재학 중인데, 중국어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제가 중학생 때 중국인 친구를 따라 중국어 병음을 배우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글에는 없는 병음의 표기 방법과 발음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중국어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구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대학교 진학할 때도 '대학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제일 관심 있고 끝까지 해 나갈 자신'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자'라는 생각으로 중국어 전공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Q.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제가 작년에 중국 심천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는데요.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

니까 하루아침에 중국어를 말할 기회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참가할 수 있는 중국어 관련 대회는 다 참가해 보자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또 대회에 참가해 보면서 제 중국어 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와 인정을 받아보고 싶어서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Q.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A. 중국어 원고를 외울 뿐만 아니라 감정을 하나하나 다 살려서 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얘기하자면 중국인보다 더 표준적이고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성조 연습에 각별히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발표가 끝나면 바로 문답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대응하고자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회화 구사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Q. 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게 제일 겁나고 많이 떨려서 어떤 말도 잘 안 나오게 되곤 했어요. 하지만 본선 대회 나가기 전 교수님과 튜터님 이 학생들 앞에서 실전처럼 발표해 보면서 담대함을 기르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Q.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의 기분과 주변 반응은 어끠나요?

A. 사실 대회를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께서 상을 기대하진 말고 참가하는

데에 의미를 두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평소 연습할 때처럼만 잘하고 오자라는 편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수상할 수 있었고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하니깐 일차적으로 제가 국회에 가서 발표했다는 것에 놀라고, 이차적으로 콘텐츠 대상을 받았다는 것에 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대회에 진출해서 상을 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인가요?

A.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있을 각종 중국어 대회에 참가해 보고 싶어요. 지금도 튜터님 이 공부하고 있지만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경제나 문화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두고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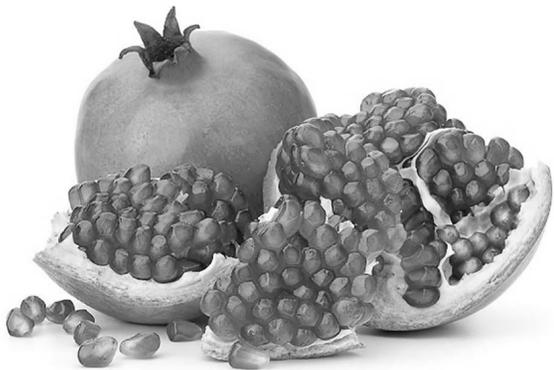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동서대 중국어학과에 관심 있는 예비 동서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안에 부여한 내 마음까지 중요하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코로나 학번이던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커리큘럼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 학교에서도 기존 커리큘럼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심천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것도 학교에서 다 지원해 주셔서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를 다니면서 얻은 이익도 되게 많고 경험할 수 있었던 선택의 폭도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입학했을 때의 나 자신'과 '졸업했을 때의 나 자신'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작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나현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 - 석류



▶ 석류

▷ 사진 출처 - 네이버블로그-데일리

하나님께 축복으로 내린 식물, 석류
이스라엘의 실제 농경 생활은 가나안부터 시작됐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대신 곡식과 과일나무를 심는 등 농경 생활이 활발해졌다. 그로 인해 그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며, 유목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곱 가지의 식물을 축복으로 내려주셨다. 바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꿀이다. 일곱 가지의 식물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채로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고, 가난한 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됐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신 일곱 가지

의 식물 중 석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다산의 상징, 석류

석류는 지름 6~8cm에 둥근 모양으로 단단하고 노르스름한 껍질이 까맣고 있으며, 과육 속에는 새빨간 씨가 달고 신맛이 나는 투명한 내피에 싸여 뽕뽕하게 박혀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완전히 익은 석류에는 모두 613개의 씨앗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율법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렇기에 석류나무를 예멘동산의 '생명의 나무'로 간주한다. 유대 여성들에게 석류는 다산의 의미가 있다. 석류를 짜서 그 즙을 마시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속설이 있기도 했다. 지금의 시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석류의 껍질에는 타닌, 씨앗에는 에스트로젠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여성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석류의 즙을 짜서 마신 아이를 갖는다는 속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됐다.

석류의 다양한 쓰임새

석류에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용을 위해 하루에 석류 반쪽씩 먹으며 관리했다고 전해진다. 석류에는 여성호르몬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아름답게 해 준다. 석류는 건강에도 좋다. 열매와 껍질 모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으며, 부인병과 부수렴에도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석류 열매의 껍질과 나무 외피는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나 글을 쓰기 위한 잉크의 원료로도 이용됐다.

석류의 역사

석류나무는 약 4m까지 자랄 수 있다. 꽃은 주황색이고 나무껍질은 짙은 편이다. 석류의 크기는 사과만 하고 빨간색 껍질 안쪽에는 빨간 열매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빨간 열매는 달콤하고, 빨간 껍질은 열색하는 데 사용됐다. 역사적 자료를 살펴볼 때도 고대 시대에는 석류 모양으로 된 장신구가 많았다.

현대 시대에 들어서 새해에는 유대인들이 꿀과 섞어 먹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석류의 많은 알맹이 수만큼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류의 많은 알맹이만큼 많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도 내포하고 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석류의 열매껍질을 말려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다. 즉 석류는 잉크의 재료로도 쓰였다.

성경으로 보는 석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 8: 6~8)

성경에서 볼 수 있듯 석류는 하나님께 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선물이다. 일곱 가지의 식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석류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를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아가서 4: 3)

그만큼 석류는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였다. 옷 끝자락에는 석류 모양을 새겨 넣거나 결혼식장의 기둥에는 석류 모양을 새겨 넣었다. 이를 통해 석류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 석류는 건강과 행복을 가져

다주고, 사업에서 석류는 성공의 축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집과 사무실을 석류의 축복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명절, 탄생, 결혼, 장례, 대학 졸업 등을 위한 선물로 석류를 주고받기도 한다.

석류 모양의 장신구

석류 모양의 장신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언급을 살짝 했듯이 옷에도 석류 모양을 새겨 넣었다. 제사장들의 옷에도 석류 모양을 새겨 넣었는데 그 이유는 마귀를 쫓기 위함이다. 제사장의 옷에 석류 모양 '에봇'을 밑에 달아 마귀를 쫓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역시 석류는 제사 의식에 관한 장신구로 자주 등장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자신이 만든 성전의 두 기둥을 석류 모양으로 장식했다. 이때 눈여겨볼 만한 점은 우가랏의 대 제사장의 집에서 석류 장식의 기둥이 발견됐다고 한다.

예멘의 선악과

'예멘의 선악과'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느냐는 질문에 다수가 사과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대로 석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석류의 학명은 'pomegranate'라고 하는데 이 말은 pome(apple)와 Granada(스페인 남부 왕국의 이름)의 합성어로 열매와 전파된 지역을 따지는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 석류는 건강과 행복을 가져

장하지만, 성서에서는 예멘의 금단 열매에 대해 무엇이라는 언급이 없다. 선악과는 먹으면 선악을 없게 된다는 선악과나무의 열매이다. 훗날 사람들은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라고도 부르며 가지고 싶지만,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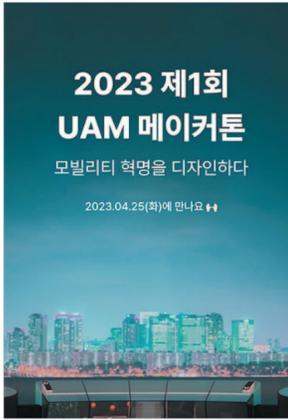
더불어 성경을 포함한 많은 고대 문학 작품에서는 사과와 석류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예멘의 선악과는 석류라는 의견도 부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성경 속 음식인 석류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살펴봤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린 일곱 가지의 식물 중 하나가 석류라는 점을 알게 됐다. 또한 완전히 익은 석류에는 모두 613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율법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 재밌었다. 단 순히 맛있는 과일만 생각하고 지나쳤을 석류를 성경과 함께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출처
유재덕, 맛있는 성경이야기, 김수경, 성경으로 떠나는 음식여행, 예수님은 뭘 먹고 싶었을까, 네이버 지식백과, 석류, 금단의 열매 블로그, norino, 신성한 열매 '석류' 성경에서 찾다, 블로그, 제이 바이블, 식물로 본 성경-석류 김나현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23 제1회 UAM 메이커톤
• 접수기간 : ~2023. 05. 10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 영상, 인테리어, 기획/아이디어



■ KB금융캠퍼스 S.I.N.G 프로젝트 4기
• 접수기간 : ~2023. 05. 10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대외활동, 금융/재무



■ 아두이노를 활용한 IoT 서비스 개발자 양성과정
• 접수기간 : ~2023. 05. 10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대학교/공학/기술/IT



■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 접수기간 : ~2023. 05. 12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디지털



■ [신한 스퀘어브릿지 : 유스] 신한 커리어업 3기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 ~2023. 05. 14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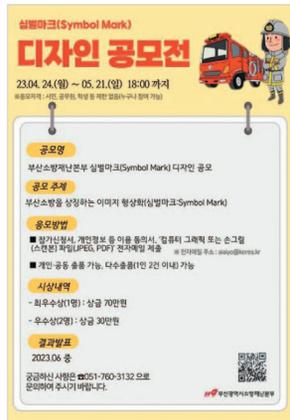
■ 프론트엔드 개발자 취업캠프
• 접수기간 : ~2023. 05. 14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 과학/공학/기술/IT



■ 제35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부산 예선대회
• 접수기간 : ~2023. 05. 18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공예



■ 44기 WFK 청년봉사단 해의봉사단원 모집
• 접수기간 : ~2023. 05. 18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봉사



■ 부산소상공인진흥공단 심벌마크 디자인 공모
• 접수기간 : ~2023. 05. 21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 기획/아이디어



■ 2023 대학생 생물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5. 24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과학/생물



■ 4차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는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전문가 양성과정
• 접수기간 : ~2023. 05. 26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 과학/공학/기술/IT



■ 202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 접수기간 : ~2023. 05. 31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대외활동, 농기술

내 손으로 찍은 동서대학교!

우리 대학의 풍경 사진을 찍어 제보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음 달 신문 1면~3면에 제보해 주신 사진들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소중한 경험을 동서대학보를 통해 즐겨 보세요.

예시) 우리 대학 풍경, 학교에 사는 고양이 등

- ✧ 제보하고 싶은 사진은 5월 27일(토)까지 01tarbf1@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 ✧ 당첨자 발표는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발간되는 189호(6월호) 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 ✧ 신문에는 사진과 함께 제보해 준 학생의 학과,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